

정경대 신입생, 복학생맞이 흰영 사업 中  
총여학생회 기획 강연

이 땅,  
아름다운  
청년이고 싶습니다.



- ♣ 언 제 : 통일 염원 50년  
의망이 꽂 피는 3월 9일 -- 11일  
매일 늦은 5시
- ♣ 어디서 : 정경대 402 강의실

## 기획 강연의 취지와 의의

한국 사회에서 청년 학생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젊고 패기있고 진취적이며 정의와 새것에 민감하다는 본질적 특성을 말고도 이후 사회에 나가 교육자, 언론인, 사무 전문직 또는 생산적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농인이 될 수도 있는 준비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 한국 사회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것입니다.

사회를 책임지는 것은 먼저 사회의 모습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모습을 올바로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미국의 식민지인 이 땅에는 외세의 손아래 섹스와 마약, 폭력으로 대변되는 양키들의 개인주의 문화에 의해, 그리고 정부의 기형적인 경제 성장 정책으로 인한 서비스업과 기생관광의 범람에 의해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청년 학생마저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문화에 대한 입장은 나의 생활에서부터 구현하는 것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책임감과 민족 구성원들간의 단결과 공동체 의식 ( 여성에 대해 등등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것 )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기획 강연은

우리나라 성문화의 현 주소를 사회 성격과 결부시켜 파헤쳐 본 다음 이런 문화들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고 건강한 청년의 모습일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으로 기획했습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건강, 건투 !!

첫째날 => 9일 늦은 5시

## 추적 25년, 우리 나라 성문화의 연주소

@@ 강사님 : 주한 미군 병죄 근절 운동본부 정유진 간사

### @@ 이야기 시작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일 뿐 아니라 민족적 예속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민족적 예속의 현실이 어떻게 여성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체제는 미국의 이해 관계의 변화에 따라 외자 도입과 수출증대를 위해 국내와 국외의 독점 자본에 대한 각종 지원과 특혜가 배풀어지는 한편 저임금, 저곡가 정책과 노동운동의 규제등의 억압정책으로 농촌의 피폐화와 이농이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도시 빈민의 수가 급증하였으며 노동자의 수적 증가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빈곤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 농민들은 몸을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에서 매춘의 길로 들어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기 시작한 1950년 이후로 그들 나라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유린하였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우리 나라 민족의 이해를 우선에 두기 보다 미국의 이익을 중심에 놓았던 것입니다. 지금의 쌀 및 기초 농산물을 아무런 노력도 없이 수용한 김영삼 정권처럼 말입니다.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도색 잡지와 포르노 비디오, 음란 서적 등이 바로 미군 부대 창고에서 훌려나왔고 부대 주변의 기지촌에는 이 땅에서 가장 억압받는 여성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라는 살인 병기를 이 땅에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미군이라는 존재가 우리 민족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 여성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 지 고민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둘째날 => 10월 늦은 5시

## 아름다운 성교 사랑을 위하여

☞ 강사님: 서울지역 여학생대표자 협의회 집행국 이정현

### ☞ 이야기 시작

대학교라는 공간은 자유와 개방의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마냥 좋은 일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많은 술자리와 체육대회와 학생회 행사등에서 여학우들은 알게 모르게 보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활달하게 나서는 여학우는 드세다고 눈총을 받게 됩니다. 모여서 심심하면 자연히 이야기의 화제는 소위 음담패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무언가 기분 나쁘고 잘못 된 건 같은데 꼬집어 문제제기하고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성답다’라는 것과 ‘남성답다’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이야기한 모습은 바로 여성과 남성을 이미 규정한 어떤 모습에 끼워맞추어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이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사랑에 대해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에 대해 알게 모르게 팽배해 있는 환상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사랑에 대한 환상, 은폐된 성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결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들....

이 모든 것들이 대학내 우리들의 인간관계와 생활 전반을 왜곡하는 원인들입니다. 진정 중대있고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성과 사랑을 한다는 것, 청년 학생답게 생활해 간다는 것 !!

우리 함께 고민해 봅시다.

## ♣ 도움글 네엣

셋째날 ==> 11일 늦은 5시

# 우리가 만든 우리들의 이야기

둘째날 작성한 설문지를 분석해보고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 봅니다. 가능한 조는 촌극으로 형상화 해 보는 것도 좋겠지요.

## 주제 하나,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성이 살아왔고 살아나갈 삶은 인간다운 삶일까요, 여성다운 삶일까요?

아직도 세상에서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여성은 팔자가 사납다고 합니다. 또한 가사노동을 여성의 몫으로 규정한 사회속에서 여성은 불리한 고용조건과 근로조건을 감수한 체 가정과 직장에서 모두 충실히 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과연 주체적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삶은 슈퍼우먼만이 누려야 할까요?

여자의 일생은 슈퍼우먼과 사랑받는 아내 사이의 선택의 문제인지 고민해 봅시다.

## 주제 두울, 우리 나라의 성문화

승고하고 아름다운 성은 우리가 사는 사회속에서 부끄럽고 더러운 것으로 인식되어져 우리들은 은밀한 곳에서 왜곡되고 변질된 성만을 배워왔습니다. 기지촌 중심의 매매춘, 시중에 나도는 음란 저질물, 퇴폐향락 업소, 그리고 대학가에서조차도 공공연히 인정받는 저질적인 술자리 문화 등 우리나라 성문화의 본질과 바람직한 성문화의 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주제 세잇. 대중 매체가 왜곡하는 여성의 모습에 대하여**

예를 들어봅시다. 세계 선전 중 텔런트 김희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매에 때가 묻은 와이셔츠를 보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생각나요.”라고 하면서 남편의 의복을 세탁하는 내조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자동차 선전에는 자동차와 무관한 늘씬한 다리의 미니스커트 여성 이 빠질 수 없는 중심입니다. 값 비싼 화장품으로 아름다움을 관리 하는 미인 등.... 혹시 이런 광고를 통해 여성의 역할을 고정시켜 버리거나 매매춘 문화를 합리화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삶을 포괄하는 대중 매체의 영향은 엄청납니다. 여기서는 광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봅시다.

## 선내기와 교사가 함께 변화하는 여성 문제 연구 소모임

여자들이 몰려 다니면 뭔지 불안하고 좌의 단합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좌 친부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후배들을 둘뿐 마음으로 기다리던 93 선배나 이제는 낙락하고 성숙한 품으로 새내기를 품어 안을 준비를 하는 3,4학년 선배님들은 남녀 새내기들에게 모두 관심을 갖고 좌 생활에 잘 정착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선배들은 남자 새내기들에게, 남자 선배들은 여자 새내기들에게 어려움을 느끼고 조그만 차이에도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여학생회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새내기의 삶에, 선배들의 후배 사탕의 실천 방법에 여학생회 소모임이 도움이 된다고 제안합니다.

### 1. 새내기에게 참된 인간관계를 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여학생회 소모임은 여성학이라는 전문성 있는 내용을 취급하지만 다른 학술 소모임과는 다르게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어 자연스럽게 살아온 과정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서로의 삶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이에서는 사소한 행동으로 인한 오해가 적고 서투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그 사람의 단점이 어떠한 원인에서 생기게 되었나를 파악하게 됩니다.

“저 선배는 왜 저렇지?”, “저 새내기는 버릇이 없어” 등의 말을 깊은 고민없이 내뱉지 않는 바른 사람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지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 집안문제를 감수하며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 술기운을 빌은 인생고백을 들을 필요가 없는게 여학생 소모임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2. 새내기와 함께 이땅 민중을 기슴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 여성이라는 굴레를 함께 지고 있다는 동류의식을 기반으로 사회의 모든 계급계층의 여성을 애정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답답하게만 바라보고 무능하게 바라보던 전업주부인 어머니의 모습도 여성문제의 집체화된 모습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중년이 지난 어머니의 허탈함과 고독도 어린 마음이지만 품어드릴 수 있는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밑바닥 인생이라고 말하는 생산적 여성 노동자의 삶을 통해 노동 소외의 문제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더 비틀려다가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농촌 활동을 가서는 여성 농민의 삶을 통해서 농업 농민 문제를 더 절실히 느끼고 어머니의 소중함, 흙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생산의 소중함을 통해 모성보호가 왜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가도 생각하게 됩니다. 여성의 삶을 통해 본 사회는 협소해 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여러문제가 규명이 되고 더 풍부한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 3. 새내기와 함께 민족의 온명을 걱정하고 작은 실천을 마련하게 됩니다.

... 우리 남한에 사는 여성은 세가지 모순에 부딪힙니다. 민족, 계급, 성 모순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착취받는 생산적 여성 노동자의 노동 문제도 우리 사회의 식민지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광고 비판이나 스포츠 신문의 저질 문화도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일제 치하의 공창제도나 기지촌의 포르노 비디오 테이프의 밀수 등 제국주의 지배전략과 연결시키는 안목도 생기게 됩니다.

## 4. 교사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창안해 낼 수 있고 새내기는 여러 매체를 통해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여성학책을 통한 세미나 외에도 영화를 통해서나 여성문제가 주제가 아닌 문학이라도 그 속에서의 여성의 삶을 통해 배울 수도 있구요. 직접 현장학습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기지촌 활동을 통해서 매매춘 문제를 알수 있고 통일 문제의 절실함도 느끼게 되며 공장 활동이나 농촌 활동도 산교육의 방법이 됩니다.

하다못해 일상적인 삶이나 어제 저녁에 본 드라마, 광고, 뮤직 비디오를 통해서도 여성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교사가 충분한 자질이 있다면 성인 영화를 함께 보면서 영화안에서 남녀의 성심리를 어떻게 왜곡시키는가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

## 5. 여학생 소모임은 새내기에게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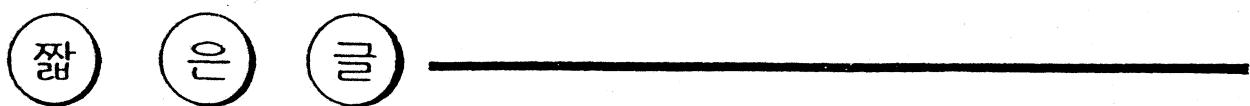
... 사회에 눈을 들려서 그 속에서의 여성문제를 미리 간접적으로 나마 알게 되기 때문에 사회진출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알게 해 줍니다. 여학생들이 자라는 환경속에는 대하기 어려운 사람과는 부딪히지 않게 하거나 어떤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할 때 보호받고 다른 사람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는 데 익숙한 모습이 있습니다.

취업을 잘 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인데도 막상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쉽게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우리 학교 여자 선배님들 경우도 첫 직장에서 2개월 후 이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삶을 책임져야겠다는 요구가 여성문제를 깊이있게 연구하다 보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인간관을 가지고 이성관을 정립하게 연애할 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사랑과 성이 왜 일치해야 하는가와 사랑과 결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왜 안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결혼 이후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성 역할의 고정성을 깨뜨려 보아야겠다는 힘찬 결의도 생기게 됩니다.

어때요? 새내기의 삶에 도움이 되고 좋은 선배로 서는데 도움을 주는 여학생 소모임을 우리과에도 세워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소모임을 운영하는 교사의 단련 문제나 내용의 문제는 총여학생회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립니다.



각 문항은 5점 만점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내가 몰랐던  
나의 컴플렉스를  
진단해봅시다.

-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 2점 → 별로 그렇지 않다
- 3점 → 보통이다
- 4점 → 약간 그렇다
- 5점 → 정말 그렇다

점수를 계산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신이 어느 컴플렉스에 많이 빠져 있는지 알아보자.

### 〈 7가지 여성 컴플렉스 진단법 〉

컴플렉스란. 전체 성격속에서 특히 어떤 것에 강하게 집착하는 작은 성격을 말 한다. 이것은 사람의 행동 대부분을 지시 하며 성격 형성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 한다. 그러나 보통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지 그 여부를 잘 알지 못하며 따라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통제받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다음 설문지의 질문을 체크해 보면서 자신은 어느 컴플렉스에 얼마만큼 빠져 있는지 자신이 무엇에 좌우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늠해 보자.

15점 이하 : 컴플렉스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발휘하여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여성이다.

15~20점 사이 :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형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으나 속마음은 자립하려는 마음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행동하며 갈등하는 여성이다.

20점 이상 : 알게 모르게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중이다. 점수가 아주 높은 경우는 자신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지 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사로잡혀 있는 여성이다.

## 착한 여자 컴플렉스



## 외모 컴플렉스



1. 여자답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 의식적으로 얌전하고 조용하게 행동한다.
2. 규칙이란 무조건 따라야 하며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토론할 때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침묵하는 경우가 있다.
4. 기분나쁜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싫은 내색을 하지 않는다.
5.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다수가 결정한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대로 따르는 편이다.

1. 남자들로 부터 '능력있다'라는 말보다는 '예쁘다'는 소리가 듣고 싶다.
2. 성형수술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 다이어트를 해 본 적이 있다.
4. 결혼은 30세 전에 가야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취업이나 결혼에서 여자는 실력보다 외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 성컴플렉스



## 지적 컴플렉스



1. 결혼 전까지 순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여자가 먼저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정숙하지 못하고 천박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3.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과 관련 된 이야기나 잡지를 보고 싶어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여 참는 경우가 있다.
4. 여성의 순결과 정조를 보호하기 위해 서라도 매춘은 사회의 필요악이다.
5. 이상적인 사랑의 대상은 곧 결혼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1.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여성은 불쾌하다.
2. 남성의 주장은 받아들이면서도 여성의 주장은 어딘지 미심쩍어 한다.
3. 남자와 일을 할 때 남자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느낀다.
4. 여자가 너무 많이 알면 팔자가 세다고 생각한다.
5. 학교나 단체에서 남자는 회장, 여자는 부회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신데렐라 컴플렉스



## 슈퍼우먼 컴플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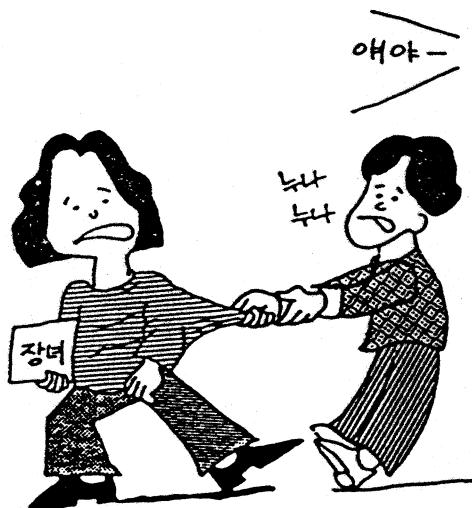


1. 혼자서 여행을 가지 못한다.
2. 집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다.
3. 여성의 삶은 남편을 잘만나는데 달렸다고 생각한다.
4. 혼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처리할 때 결과에 대해 두려워 한다.
5. 결혼 상대자는 나보다 뛰어나고 키크며 연상이기를 원한다.

1. 어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2. 자기가 직접 모든 일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안심이 된다.
3. 항상 일이 남아서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한다.
4. 결혼을 하면 현모양처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5. 아무리 힘들어도 일을 적당하게 마무리하거나 남에게 부탁하기를 꺼린다.

## 만딸 컴플렉스

### 〈 7가지 남성컴플렉스 진단법 〉



15점 이하 : 콤플렉스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통적인 남성상을 거부하고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강요되어온 남성다움의 관념을 탈피하여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추구하는 남성이다.

15~20점 사이 : 기존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성상을 추구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주위의 시선이 두렵다.

20점 이상 : 현재 콤플렉스에 빠져있다. 남성다움의 틀속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한다.

## 마더 컴플렉스

- 집안 일과 동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자신이 아들이었으면 할 때가 있다.
- 적령기에 결혼하여 동생들의 결혼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늘 동생들의 본보기로서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고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말아야겠다는 부담감에 시달린다.
- 자신의 첫아이가 아들이기를 바란다.



- 집에 어머니가 없으면 괜히 불안하다.
- 후에 결혼한다면 내 맘에 드는 여자보다 어머니 맘에 드는 여자를 택하겠다.

3. 대학이나 과선택에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4.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앞서 어머니에게 물어본다.
5. 후에 결혼 생활에서 고부간의 갈등상황이 벌어진다면 제3자의 입장으로 지켜보겠다.

**크기 컴플렉스**



**능력 컴플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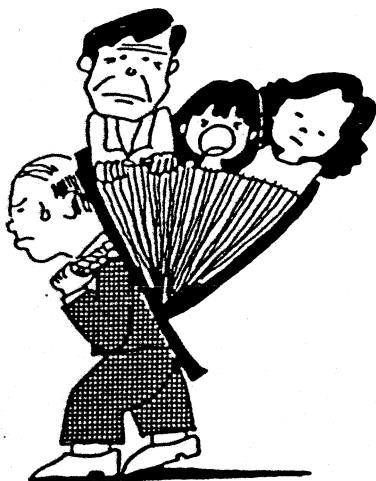
1. 여성은 외모로 승부하고 남성은 능력으로 승부한다고 생각한다.
2. 대학이나 과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3. 남들보다 유리할 조건들(자격증, 학점)을 확보하기 위해 애쓴다.
4. 학연이나 인맥에 전전긍긍하면서 요령껏 출세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다.
5. 친구들이 경쟁자로 느껴진다.

1. 자신이 가진 성기 크기에 불만이 있다.
2. 목욕탕이나 공중변소에서 남의 것을 훔쳐보고 자기 것과 비교해 본다.
3. 다른 사람이 자기것보다 크면 주눅이 듦다.
4. 강장제나 정력제 광고를 유심히 본다.
5. 남성은 늘 강해야 하고 여자를 성적으로 만족시켜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 온달 컴플렉스



## 가장 컴플렉스



1. 능력있는 여자에게만 매력을 느낀다.
2. 처가덕에 출세하고 싶다.
3. 재력이나 능력이 뛰어난 여자를 만나 신분상승의 디딤돌로 삼고 싶다.
4. 자신의 인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봉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약사나 의사부인을 얻어 자신은 직장이나 생계유지에 매달리고 싶지 않다.

1.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린다.
2. 자신의 꿈과 적성에 맞는 직장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를 원한다.
3. 변화나 위험부담이 따르는 일은 기피한다.
4.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남들을 지배하고, 우월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5. 자신의 행동이나 진로에 내 생각보다 가족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한다.

허세 컴플렉스



카사노바 컴플렉스



1. 인정받기 위해 허풍으로 자신을 과장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다.
2.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만 해라'는 식의 말을 자주한다.
3. 남성과의 관계에서 우월해야 한다는 경쟁심리를 느낀다.
4. 남들 앞에서 신문이나 잡지에서 읽은 글 몇 줄로 자신의 의견인 양 유식한 척 하다가도 사실이 드러날까봐 초조해 한다.
5. 자신 역시 추우면서 안추운 척 여자에게 웃음을 벗어준다.

1. 모든 여성은 자신의 성적 대상 범주에 놓고 가능성을 둔다.
2. 여성과 쉽게 관계를 맺다가 끊곤 한다.
3. 남성에게는 성의 방종쯤 큰 허물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4. 성경험이 많은 친구가 부럽다.
5. 동정을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부담이 되거나, 주변의 조롱을 받을까 하고 주위를 의식한다.